

무안군,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무안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9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돼 관광객의 관광정보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및 편의성을 제공한다.

군은 오는 6월 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1월까지 무료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사업은 총 2억 9,100만 원을 투입해(국비 3,500만원,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통신사업자 1억1,600만원) ▲탄도 ▲화산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지원사업’ 공모 선정 주요관광지 18개소 무선AP 44대 설치 추진

백련지 ▲황토갯벌랜드 ▲초의선사 탄생지 ▲도리포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 18개소에 무료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무안을 방문객, 관광객, 남악중앙공원, 9개 읍·면 소재지 등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58개 지점의 무료와이파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무안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으로 통신요금 절감과 관광정보 검색 및

SNS 이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료와이파이 구축이 무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민에게 통신요금 절감 및 정보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무안종합스포츠타크, 남악다목적체육관,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료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숲가꾸기 사업 추진 박차



영암군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확보와 임목의 생육 촉진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2019년 숲 가꾸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 736ha를 대상으로 조림지 풀베기 300ha, 덩굴류 제거사업 180ha, 어린나무 가꾸기 20ha 및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림가꾸기 256ha로 구분해서 시행 추진 중에 있으며,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 제거사

업을 조림목에 피해를 주는 잡초, 잡관목, 덩굴류 등을 제거해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6월 중에 발주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침엽굴 제거전문단 및 산물수집단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민원에 대하여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물론이고, 수집한 산물은 톱밥을 생산하여 동절기 영세축산농가에 공급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 일거양득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관계자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은 실천이 미래 세대에겐 경제적 지원이 되는 물론 장래의 소중한 공익적·환경적 자원이 된다”며 산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해남군, 농어촌 등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 운영

해남군은 농어촌 마을을 비롯한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거점 수거시설인 ‘재활용품네마당’을 설치했다.

총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남읍 안동마을 등 관내 10개소에 설치된 재활용품네마당은 농어촌과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의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설은 비가림 설비와 함께 10종의 분리수거함, 분리배출 감시용 카메라 등이 설치됐다.

재활용품네마당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인근 주민이 직접 관리 및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무분별한 불법소각 및 투기를 예방하고 재활용 분리배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이와함께 올해 마을회관, 공동주택 등 70개소의 분리수거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기도 했다.

군은 10개소의 운영 후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후 관내 농어촌 지역에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수거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농어촌마을에는 시설이 없어 재활용품이 불법 투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설비는 주민 스스로 재활용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도군, 선도적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박차

치매안심마을 조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진도군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최근 의신면 칠전마을을 진도군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안심마을 조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전남도 사업으로 예산 2,400만 원을 투입,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치매안심마을을 프로그램은 전문인력인 작업치료사를 투입해 신체 기능증진활동, 원예치료, 음악치료 등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해 헤이팁 교

실 등을 추진한다.

특히 치매환자 돌봄 안전관리를 투입하고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인지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자원을 통해 통합적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진도노인복지관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동참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진도노인복지관은 다수의 직원들이 치매파트너 교육에 이수하고 진도군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두뇌 속삭이 기억 속삭이 인지기회교실을 운영하는 등 치매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중앙부처 방문 예산 확보 총력

완도군이 민선 7기 군정 비전 실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건부 공무원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군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면담을 통해 1998년 기관통합 이후, 주 사무

소가 강진으로 이동하면서부터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는 바,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 사무소 설치(부활)를 건의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완도군이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를 의료와 관광, 바이오헬스가 융합된 해양관광 허브 지자체로 육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

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갈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공사비와 군 단위 LPG배관망 구축에 따른 추가 사업비,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여가 경영 안정을 위한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등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신 군수는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상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강진군,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장애 관리 정신건강증진 교육



강진군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소방서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125명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법 등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화재, 구조, 구급현

장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만날 기회가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많은 교육과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되었다.

강진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박현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노인수 교수를 초빙,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예방법과 해소방법,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자살예방관리 요령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진=김영일 기자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사업 착수

신안군은 섬 문화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2019년 사업비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의 섬마을 곳곳에 잘 남아있는 돌담은 마을의 형성과 함께 오랜 세월을 이어 온 우리의 문화이며 전통미와 정서를 간직한 자원으로,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늑함과 여유로움, 소품의 정서적 공간이다.

그러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돌담의 훼손과 방치 등으로 섬마을 경관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어 군은 파괴된 돌담의 원형 복원을 비롯해 기존 시멘트 또는 벽돌담장을 돌담으로 바꾸거나 주택, 마을 주변의 신규 돌담 설치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돌담 정비사업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각 읍면별로 6월 25일까지 수요조사 후 현장 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장성군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맺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